

에너지 · 화학, 3월에도 상승세 지속

대신증권, 유동성 공급으로 ... 유럽 · 미국 경기회복에 중국 긴축완화도

조선, 에너지, 화학이 3월 주식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됐다.

대신증권 이대상 연구원은 “유럽위기 안정, 미국경기 회복 기대, 중국 긴축완화 등을 바탕으로 유동성이 추가로 풀리는 것을 감안하면 2012년 1-2월에 많이 오른 업종이 3월에도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”고 2월23일 발표했다.

또 “영업이익 전망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 국면에서는 업종을 고를 때 영업이익을 보는 것이 무의미하다”며 “건설은 상승여력이 적고 운송은 주가순자산비율(PBR)이 최고 수준”이라고 덧붙였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 · 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2/02/23>